

영양식생활교육



전주용덕초등학교



경칩에는 흙을 만지는 일을 하면
일년 내내 악재가 없다고 하여 흙으로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는 풍습이 있었어요.



또한 경칩에는 몸에 병이 생기지 않고
여름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마시는 풍습도 있었지요.



과거 조상들은 개구리알을 먹으면
눈과 머리가 맑아지고 몸을 보호한다고 믿어
경칩에 개구리알을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경칩에 보리싹 점을 보는 풍습으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미리 예측했는데,
겨울 추위에도 보리싹이 잘 자라면 풍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라 믿었습니다.